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OBS 골프 동호회 ‘퍼머드쇼(PMDS)’ 창립기

글. 김영광 OBS 제작부조 음향감독 (새내기 회원)

사내 동호회?? 회사 내에 야구 동호회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지금도 활동을 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고 작은 소모임은 있지만, 동호회라는 타이틀로는 정식적인 모임은 없는 것 같았는데요. 그럼 무얼 소개해야 하지? 하는 마음에 회사를 돌아다니며 동호회라 할 수 있는 모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자주 만나 골프를 치는 선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호회 소개를 해야 한다는 부탁에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글을 쓰게 도움을 주신 회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골프를 즐기는 것이 바로 이기는 조건이 된다."

- 헤일 어윈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대한 프로 골퍼, 바비 로크 / 출처 : Wikipedia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 골퍼, 헤일 어윈 / 출처 : www.usga.org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골프가방을 싣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되는 요즘, 밖에는 실내 스크린 골프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자연스레 생활 스포츠가 되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골프!! 회사 내 점심시간이면 삼삼오오 모여 골프 이야기하는 모습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정말 누구나 하는 골프!! 혼자보다는 함께해야 더 즐거운 골프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함께 골프를 치고, 배우며 성장해가는 OBS 골프 동호회 '퍼머드쇼'의 소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Q. 동호회 이름은 뭐로 하지?

이번 동호회를 소개하는 기사를 부탁받고 동호회를 창립하려고 하니 동호회 이름을 짓는 것이 먼저였어요. 모두 모여 여러 가지 이름이 말했는데요. '빈스윙 싱글, 철퍼덕, 왜 이러지?, 독수리처럼, 나비수집, 퍼머드쇼' 이 중에서 '퍼머드쇼(PMDS)'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배영준 퍼머드쇼 초대회장

퍼머드쇼는 "드라이버는 쇼, 퍼팅은 머니!"(You drive for show but putt for dought!)라는 프로 골퍼 바비 로크가 남긴 말을 앞뒤를 바꾼 건데요. 골프계의 명언 중에 하나라고도 하네요. 동호회인 만큼 초대회장은 최고의 실력자 배영준 회원님이 맡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Q. 가입은 어떻게 하지?

궁금한 점 하나! "동호회 가입절차는요?"라고 물어본다면, 이번에 창립된 동호회인 만큼 모집공고나 가입절차는 없습니다. 원고를 부탁한 저에게도 가입을 권하여서 저도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골프라곤 대학교 다닐 때 잠깐 배워본 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얼마나 잘 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배울 수 있나요? 전혀요~!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다면 언제나 환영이라고 합니다. 가입 조건이 없는 정말 좋은 동호회죠! 아직 동호회로써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이번 기회로 부족한 점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필드에서 (2019년)

Q.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나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동호회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 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전부터 직장생활 내에서 틈틈이 서로 시간을 내어 필드와 스크린 골프장을 오고 가며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교대 근무자가 많은 관계로 회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코로나 중에는 아무래도 어디를 가는 것이 쉽지 않아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잠시 우리 동호회 회원분들의 사진들 보고 갈게요.

여기서 잠깐 배영준 초대회장과의 인터뷰,

Q. 평소에 연습은 어떻게 하나요?

실내연습장에서 매일 30분이라도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Q. 앞으로 활동계획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은 스크린에서, 한번은 필드에서 모임을 하려 합니다. 향후 회원이 늘어나면 대회 개최를 하여 서로 간의 실력을 겨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원님들의 한마디~!

김 기 회원

"잘 칠 때까지~~~~
그날이 오긴 올까?"

박은종 회원

"저 푸른 초원 위에서 그림 같은 샷을 날리는 상상을 해봅니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운동이지만 무엇보다 정신수양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나비입니다."

배영준 초대회장

"골프는 샷 할 때마다 다르다.
연습만이 살길이다!"

권순현 회원

"스코어에 집착하기보단 코로나 시국에 동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 그러나 세컨샷을 제일 나중에 치고 싶은 비거리 욕심은 어찌하오리~~"

윤병철 회원

"함께함을 좋아합니다~"

김영광 회원

"강제로 가입한 새내기입니다. 골프채는 집안의 장식품이었지만, 이제 진정한 골프 동호인으로 새로이 태어나겠습니다."

지금까지 OBS 골프 동호회 퍼머드쇼 창립기였습니다. 새로 창립한 만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직장생활에 하나의 취미를 가지는 것! 그리고 동료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후에 우리 동호회를 다시 소개할 시간이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